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기 인생 첫 기자 역… 복잡다단한 감정 표현 일품



아이오케이컴퍼니



김하늘은 1996년 당시 인기를 끌었던 패션 브랜드 '스톰' 전속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여러 CF에서 청순한 미모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며 영화 '바이 준'(1998)을 시작으로 '해피투게더'(1999), '햇빛 속으로'(1999) 등 안방극장에도 진출해 단숨에 주연 자리를 꿰찼다.

이어 2001년 방영한 드라마 '피아노'에서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맡아 몰입시켰고 '로망스'(2002)로 인기 배우 반열에 올랐다. 학생과 교사의 사랑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사용한 드라마에서 김하늘은 사랑스럽고 밝은 교사 김채원 역을 맡아 고등학생 제자 최관우(김재원 분)와 애틋한 사랑 연기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2003년 권상우와 함께한 출연한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선 이전과는 다른 풋풋하고 유쾌한 매력을 뽐냈다. '동갑내기 과외하기'는 아버지의 실직으로 치킨집을 열게 된 수완(김하늘 분)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동갑내기 고교생 지훈(권상우 분) 과외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이다. 그는 멜로에 어울리는 청순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연기를 잘 소화해 '로맨틱 코미디 여왕'이란 별칭을 얻었다.

이 외에도 '온에어'(2008), '신사의 품격'(2012), '공항 가는 길'(2016), '바람이 분다'(2019), '18 어게인'(2020) 등의 드라마와 영화 '동감'(2000), '그녀를 믿지 마세요'(2004), '7급 공무원'(2009), '블라인드'(2011) 등에 출연했으며 다수의 히트작을 냈다.

특히 최고 시청률 25.4%를 기록한 '온에어'로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및 10대 스타상, 제2회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여자최우수상, 제29회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등 각종 시상식의 주요 부문 상을 휩쓸었다. 이듬해 영화 '7급 공무원' 또한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로맨틱 코미디 여왕' 자리를 공고히 했다.

작품 활동과 별개로 2016년 3월 한 살 연하의 사업가 최씨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 2018년 딸을 출산한 뒤 '공항 가는 길'로 복귀해 초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 역을 섬세한 감정선으로 '인생 연기'를 펼쳤다. 이 작품으로 KBS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상을 받아 기쁨을 더했다.

한편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김하늘이 지난달 18일부터 방영 중인 KBS2 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에 출연 중이다. 살인사건 목격자에서 용의자로 추락한 기자 서정원 역을 맡았다.

그는 방영 전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기자 역할은 처음이라 PD님과 상의도 많이 하고 기자들의 인터뷰 영상도 찾아봤다"며 역할 몰입에 노력했음을 밝혔다.

이번 작품의 매력으로 "추적 멜로 스릴러라는 장르가 처음엔 의아했는데 대본을 보니 이해가 됐다"며 "예전에는 장르물을 보면 '멜로는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세 명의 감정이 잘 버무려져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감정을 넘나드는 서정원 역을 맡아 시청 몰입도를 높이는 김하늘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H빌라(사진) 한 호실을 2020년 1월 38억 원에 매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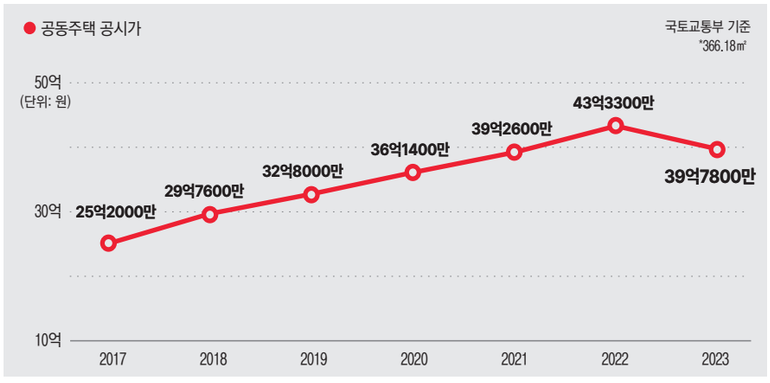
해당 호실은 연면적 253.91㎡(약 76.80평)·전용면적 236.67㎡(약 71.59평) 규모로 방 5개, 욕실 3개 형태로 이뤄졌다.

1999년 9월에 완공된 단지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에서도 고급빌라로 명성이 자자하다. 동네가 조용하고 보안이 완벽해 외부인 출입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특화 시스템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가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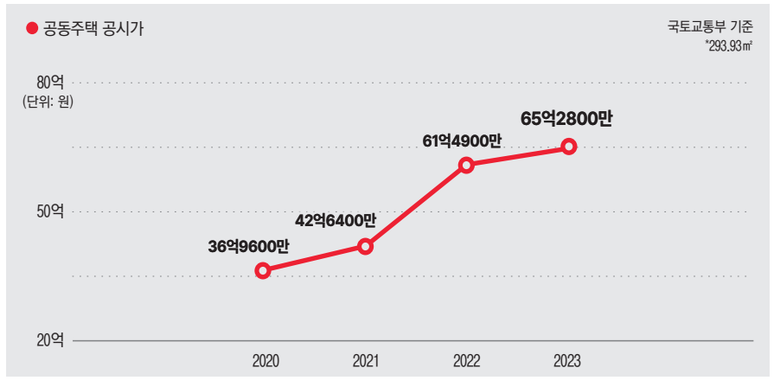
한강 주변에 있어 가슴이 탁 트이는 한강뷰를 만끽할 수 있으며 한남대교만 건너면 압구정 로데오거리·강남역·가로수길 등 핫 플레이스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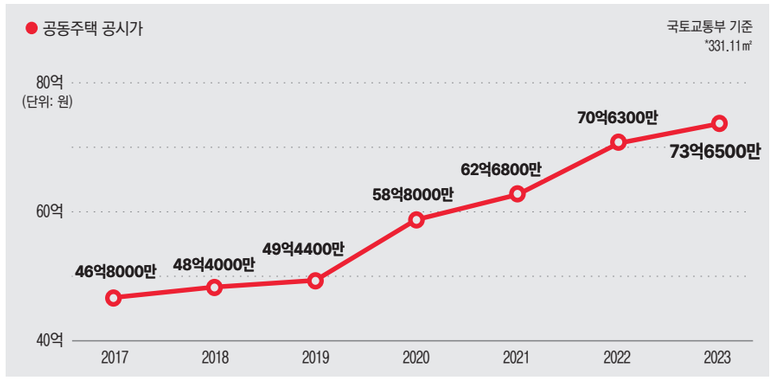
코번하우스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유광섭 현)동서울대 총장



유광섭 동서울대 총장은 성균관대 응용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 경기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무역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맡다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동서울대 학장을 지내며 교육자로 변신했다. 그 사이 2000년~2015년 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부회장, 2005년~2008년 전문대학중소기업협력회 회장, 2007년부터 안당학술장학재단 이사, 사회복지법인 복사골어린이복지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2016년 다시 동서울대 총장으로 돌아와 상아탑을 경영하고 있다. 1979년에 설립된 동서울대는 '인격과 기술이 겸비된 전인교육'이라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진실·창의·봉사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일환으로 조성된 동서울대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창의 융·복합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김성식 현)하츠 대표이사·벽산 대표이사



김성식 하츠 대표이사는 벽산그룹 오너 3세로 벽산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회장의 손자이자 김희철 벽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을 거쳐 2001년 벽산에 입사하면서 구조조정과 기업회생 업무를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5년 벽산 대표이사에 오른 뒤 벽산그룹이 2008년 하츠를 인수하면서 하츠 대표도 맡았다. 프리미엄 주방가전 선도기업 하츠는 국내 레인지후드시장 점유율 1위다. 레인지후드는 실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데 핵심이 되는 가전제품이다. 최근 하츠는 '컬러愛 물들다' 슬로건으로 컬러 중심 주방 라인업인 '부띠크 시리즈'를 출시했다. 부띠크는 화이트 컬러 주방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춰 세련된 디자인과 직관적인 제품력을 강화했으며 후드 자동 온·오프 스마트 시스템 적용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으로 스마트한 키친라이프를 주도하고 있다.



한영재 현)노루홀딩스 회장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페인트(도료) 업계 '연봉킹'에 올라 관심을 모았다. 그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창업주인 고(故) 한정대 회장을 이어 1988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2000년 다른 기업과 협업 및 연구개발로 친환경 도료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대한페인트잉크 대표이사 사장·회장, 디피아이 대표이사 회장 등을 지냈으며 1993년 생산성대상 대통령상, 2005년 은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노루홀딩스의 시초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 설립된 대한 오브세트잉크로 창업주는 광복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쓸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이를 담을 종이와 잉크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잉크만 생산하다 이후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도료사업으로 확장해 계열사 노루페인트가 탄생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D 정밀측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해왔습니다.

영토주권 강화, LX공사가 함께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